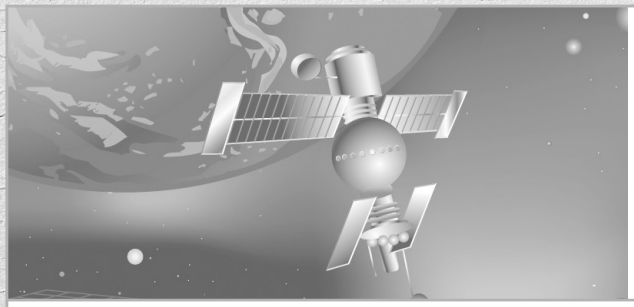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제3종 가축전염병 신설, 시행령 등 보완작업 필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공공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3종가축전염병 신설과 일부 명칭 변경을 골자로 지난 8월 3일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제3종가축전염병은 농가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제1종가축전염병에 준하여 적용을 받던 제2종가축전염병과 차별성을 두기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정된 제1종가축전염병은 뉴캣슬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종전과 변화가 없으며, 제2종가축전염병에는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가, 제3종가축전염병에는 닭마이코플라즈마,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채택되었다. 이에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가축 전염성질병(2종 또는 3종)으로는 닭뇌척수염(AE), 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 닭전염성기관지염(IB), 마렉(MD), 닭전염성에프낭병(IBD)이 선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여론수렴에 들어간 상태이다.

본회는 생산자 및 위생방역자문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미분류된 5개 질병에 대해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박멸이 가능하고 농가에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여 큰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3종으로 분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미 3종으로 분류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나머지 3종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닭에 대한 격리, 억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함께 건의하였다.

이미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제3종가축전염병의 정의를 제1종가축전염병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질병에 감염된 가축에 대해 격리, 억류, 또는 이동제한조치를 받도록 하였으며, 단지 1, 2종에 해당하는 축주에 대한 소독 및 이동제한 조치, 도태권고, 살처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차원에서 3종을 분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3종으로 분류된 질병에는 농가자체 관리만으로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격리, 억류, 이동제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에서 질병의 진단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살처분 보상비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을 적용하여 출하 지연에 따른 피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빈번한 갈등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갈등은 농가나 수의사들에 의해 신고 기피현상을 조장하여 질병방역 정책에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법정전염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질병에 대해 필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장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K) 개최
축산인, 소비자,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산박람회로

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7)가 '축산인, 소비자,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산전문 박람회'를 주제로 이달 12~14일까지 3일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196개(672부스)업체가 조기에 마감되면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예고했다. 박람회는 실내외 전시장(약 1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업체는 축산시설 및 기자재 업체가 100개업체(48%)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동물약품(14.9%), 사료(8.7%) 순이었으며, 외국업체는 미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23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양계관련 기자재업체는 25개 업체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국제축산박람회(KISTOCK)는 본회를 비롯해 5개 단체가 1999년부터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전국한우협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본 행사는 각종 세미나, 시식회, 소싸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최근 HACCP는 물론 무항생제 등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여 홍보하는 행사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에서는 양계업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07년 산란계자조금사업으로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종계DataBase사업,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자조금사업 등에 대해 농가에 실익이 되는 협회 주요 사업 소개를 통해 회원농가의 협회 활동 빈도 제고를 유도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한층 높여줄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5년 대전에서 처음 개최될 당시 박람회장이 무더위와 폭우 등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면서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편과 숙박시설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개국에서 120여개 업체가 참가했던 지난 2005년 대회에 비해 금년에는 5개국에서 23개업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것이 박람회에 대한 실망감을 말해주는 것이며, 지난해 참여했던 국내의 유수업체

들이 참여를 포기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전혀 무리없는 박람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을 앞세워 다시 유치에 성공한 대전은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신중하게 준비를 해갈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박람회는 2009년 다시 점화가 될 예정이다. 한번의 시행착오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대회 전반적으로 검토가 불가피하며, 주관단체를 매번 바꾸면서 연속성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박람회의 전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충분한 지원아래 전담 사무국을 두어 진행해 나가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부화, 사료업계 자조금사업 동참
산란업계 불황 탈출 청신호 예감

산란계 자조금 사업이 부화업계는 물론 사료업계까지 동참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수당 10원씩 거출키로 결의한 자조금은 난가하락 등 채란업의 불황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부화장, 사료업계까지 자조금을 전달하면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3억원을 목표로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개월여만에 목표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해야할 산란계 농장에서는 3천5백만원으로 전체 거출금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들이 참여의지를 높여준다면 예상을 넘는 금액이 자조금으로 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생산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무임승차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조금이 뜻깊게 사용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매체를 통한 단순 소비홍보 행사보다는 계란소비 경향 분석연구나 지역행사 참여 및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회는 지난 20일 산란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자조금 홍보계획을 검토하는 등 불황타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계란 소비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계란소비량은 1990년대 170개였으나 2000년 들면서 180~19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본격적으로 TV방송을 통한 계란 소비홍보활동이 이루어진 2005년에는 202개를 나타냈고, 2006년에는 무려 208개라는 높은 소비량을 보여주었다. 양계 선진국인 250개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최종 목표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가 아닌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조금사업 동참으로 불황을 조기 극복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양계